투데이 칼럼

안전한 물놀이로 여름나기

홍 성 광

무진장소방서 119구조대장

어느 해보다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휴일이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계곡이나 바다등으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서객 안전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 도는 산수가 화려하여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등산하기 좋은 산과 물놀이 하기 좋은 계곡·하천 등을 접하고 있어 봄·가을에는 산으로, 여름이면 계곡·하천이나 바다로 더위를 식히기 위한 피서객들로 해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다.

이에 피서객이 붐비는 계곡·하천에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수상안전요원등을 6월 ~ 9월까지 근접 배치하여 예방순찰 및 교육과 유사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상시 근무인원을 근접배치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찰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피서를 즐기는 본인들 스스로 안전을 생각하고 안전수칙등을 준수하여 즐긴다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본다.

작년 한해 전라북도에서는 수난사고와 관련하여 총 264회 구조활동으로 94명 구조하였으며, 이중 우리 관내에서만도 총 41회 구조활동으로 41명을 구조하였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동료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 피서지에서의 사고는 예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가오며, 부주의나 방심으로 인해 한번 당한 사고는 되돌릴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준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물놀이 관련하여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하면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충분한 준비운동과 본인의 수영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계곡물은 수심 및 장소에 따라서 수온차가 심해 이러한 수온차로 충분한 준비운동이 없이 갑자기 물로 뛰어든다면 심정지등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수영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본인의 능력을 고려해 적정 깊이까지만 들어가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간의(2013~2018) 통계에 따르면 수영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제일 많았다고 한다.

둘째, 관광객들은 주변에 있는 물놀이 안전수칙 게시판이나 경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인명구조요원이 있다면 통제에 따라야 한다. 간혹 구조대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물 깊숙이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셋째,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물이다. 음주 후에는 상황판단력이 흐려져 안전불감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므로, 갑작스럽게 찬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넷째, 어린이를 동반하였을 때는 즐겁게 노는 것에 집중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전담자 1명을 지정하여 어린이들을 어떠한 경우라도 어른들 시선에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전담자를 지정해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방심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피서객들의 사고 없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 및 관계자들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피서객 본인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더해진다면 안전이 보장된 즐거운 물놀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우리를 그만 죽여라" 흑인어린이 시위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5세 흑인 아이가 시위로 폐쇄된 도로에서 "우리를 그만 죽여라!"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게 목이 짓눌려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격렬해지고 있다.

독자제언

금융기관 직원사칭 대면편취 사기주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빙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전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다면서 우리 경찰서를 찾아온 피해자 이모씨는 금융기관의 대표전화와 유사한 전화번호(XXXX-XXXX)가 찍힌 전화로 "00년생인 이00고객이 맞습니까? 정부지원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 상담 받아 보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모씨는 마침 기존 대출로 2천여만원 정도가 있어 상담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00은행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가능 한 신용점수가 기준에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론으로 현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온 카드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다. 이들은 여러 명이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약간 모자란다고 하면서 은행직원과 그 직원의 상사, 카드사 직원 등 역할분담을 하여 서로 전화를 연결해 주고, 원래는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를 조급하게 하여 의심할 수 없도록 한다. 피해자도 전혀 의심하지 않다가 몇일이 지나도 대출이 되지 않자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면서 신고를 했다.

사기범죄는 피해 회복 비율이 0.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떤 관공서나 금융기관도 범죄피해 방지나 대출상환 명목으로 대면하여 돈을 받아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광일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전주 특례시 지정 계속 탄력 받아야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불투명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의 특례시 법안 검토 과정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문서로 공식 제출되었는데 이제 약발이 먹히는가 싶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전주시는 더욱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겠다. 65만 명 수준이라는 이유로 탈락된다면 전주 시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탄력을 받아야 한다.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전주시도 지역 발전을 이끄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저번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포부와 성공의지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주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김시장과 브레인들은 이번에 특례시 지정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 발전이 있을 터이다.

우리 지역이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음은 다른 지역 사람들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도지사와 전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폭 넓게 뛰어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주의 특례시 지정 건도 그렇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 언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 특례시 지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 더욱 더 힘을 내 이쪽의 입장을 설득해야 한다.

전주시는 힘차게 나가야 한다.누가 다른 말을 하면 비상한 각오를 다지는 가운데 반박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는 저력도 보여야 한다.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려면 그래야 한다. 여기 다시 당부하거니와 전주시는 시민에게 발전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전북도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가 되어 달라는 주문이다.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만 특례시 자격을 준다면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방침은 말짱 헛것이다.전주시는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역설해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기 바란다.

'한국판 뉴딜' 에 전북 몫 챙겨야

대통령이'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지도 이제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대통령의 그같은 공표는 코로나 사태로 고용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를 위해서였다.

본래 정부는 50만개에서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거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발표는 그것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일자리 제공156만개를 말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은 놀라워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디지털 일자리 55만 개를 추가 하고 공무원등 다른 일자리도 지난 5월부터 점차 4만8천 명을 채용한다고 했던 것이다.

전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응해 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도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6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마련한다고 하니 그 기대가 크다. 정부의 일자리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만큼 전북도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 다른 광역 지자체에 밀리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북도의 발언이 소망스러운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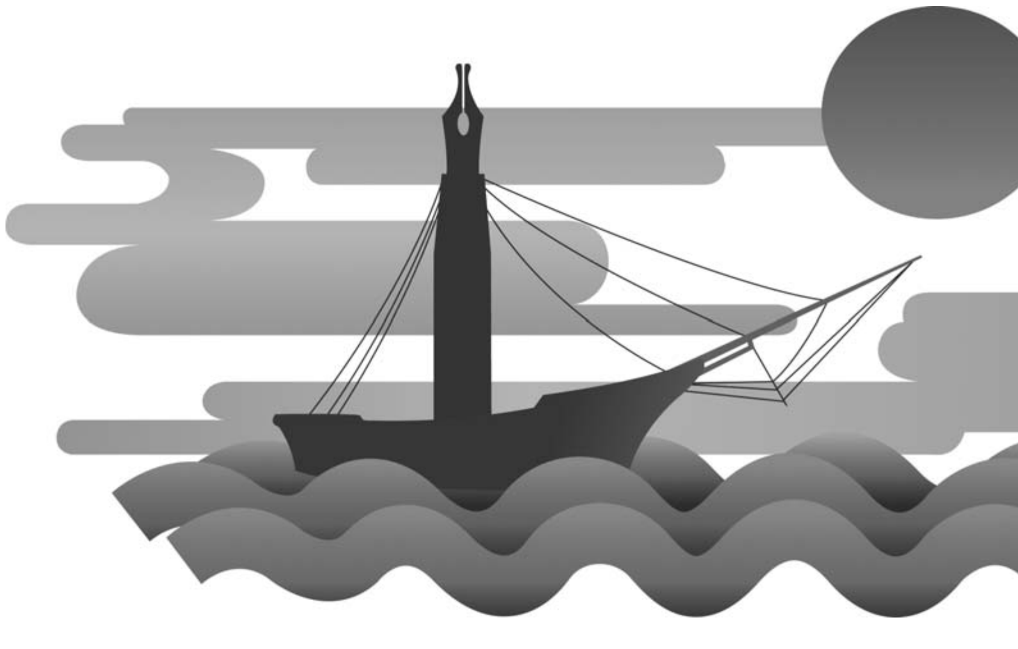
전북도는 제 몫을 지키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북도가 선택한 디지털 인프라며 지역 개발 SOC며 문화 콘텐츠 등 6개 프로젝트를 대외적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문은 다른 지자체의 그것과 중복이 안되게 하기 위함이다. 전북도는 할 수만 있다면 블루오션을 통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난날 반복해 말했던 바,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은 이유를 전북도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유감이다.

만약의 경우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전북도는 끈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전북이 광주와 전남에 묻어 가거나 끌려가는 일이 잦기에 하는 말이다. 광주와 전남이 전북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권이 크다고 해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전북은 독립된 지자체이지 광주와 전남에 예속된 게 아니다. 전북은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이번에 제몫의 일자리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